

시몬느·베이유의 戯曲 “救援받은 베네치아”에 관한 考察

高元禧*

目次

- I. 序論
- II. 스페인 陰謀의 内幕
- III. 都市(cité)에 대한 사랑
- IV. 超自然的인 憐憫
- V. 歷史속의 베네치아
- VI. 執着으로부터의 虛脫感
- VII. 結論

I. 序論

시몬느·베이유의 唯一한 戯曲인 이 悲劇은 1940년 비시(vichy) 滯留中에 執筆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죽음에 의해서 未完成으로 끝나버린 作品이다.

그러나 시몬느·베이유의 最後의 3年間, 다시 말해서 그녀의 思想의 成熟期를 檢討하는 한 要諦가 된다는 觀點에서 매우 重要한 作品이라고 생각된다. 시몬느·베이유의 著書가 人間에게 주는 感動은 그 背後에 어떤 偉大한 삶에 由來되는 것으로써 文學的 才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偉大한 삶을 追求코자 하는 表現은 平凡한 散文보다는 오히려 韻文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美的情緒에서가 아니라 깊은 自身の 使命感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 作品을 집필하게된 直接的인 動機는 두가지 觀點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프랑스의 敗戰에서 基因되고 있다. 1940年 6月 14日 파리함락 이틀전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로 향하는 途中 비시(vichy)에서 2개월간 체류시 그녀는 보다 確固한 삶의 態度를 決定하게 된다.

* 人文大學 教授

그것은 비시에 와서 만난 과리고등사범학교 동창생들이 平和의 幻想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自己地位의 保存에 골몰하여 히틀러의 마수에서 祖國을 守護할 氣概가 없는 偽善의인 平和主義者라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失望했다. 따라서 그녀는 自身이 信奉하고 있었던 平和主義라고 하는 正體를 새로이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어처구니 없는 敗戰과 그에 대한 一部 國民들의 安堵의 表現은 그녀로 하여금 反抗的 人間으로 이끌게 했다. 一部에서는 平和主義라는 假面을 쓴 사람들도 있으나, 프랑스國民에게 共通되는 하나의 病根은 理想社會를 만들고 그것을 守護하려는 精神, 다시말해서 理想社會의 根源이 되는 “뿌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지키려는 다시 말해서 精神的인 缺陷이 濃厚했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動機는 생·레알(Saint-Réal) 神父'의 “1618년에 있어서의 베네치아共和國에 대한 스페인의 陰謀”(La Conjuration des Espagnols contre la République de Venis) (1674)라는 著書를 읽고 그 史實을 면밀히 考察, 그녀 自身の 救國理念을 表明하고자 했다. 이 悲劇的인 戲曲은 三幕劇으로 構成되어 있다. 즉 人間의 自由와 尊嚴性을 蹂躪하는 모든 集團, 官僚主義, 權力體制 등의 메카니즘에서 “뿌리”를 구출코자 하는 간절한 呼訴의 드라마이다. 이 작품에서 登場人物로 내세우고 있는 征服者 Renault를 代表하는 專制權力은 유럽統一의 野望에 불타고 있는 이른바 1930년대의 당시 나치즘과 파시즘 또한 새로운 全體主義로서의 마르크스主義와 소련共產體制를 象徵시키고 있다. 시몬느·베이유는 두 種類의 集團體制를 主張하고 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린 集團과 죽어가는 集團이다. 즉 베네치아는 뿌리를 내린 集團으로서 理想國家이며, 人間의 魂을 抹殺시키는 集團을 죽어가는 集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理想國家인 베네치아는 崇高한 精神文化에 뿌리를 내려서 魂에 糧食을 주는 貴重한 媒介體로서의 集團이며, 나치즘 및 全體主義國家는 理想國家가 保存하는 “뿌리”를 意味도 없이 “우리들”이라는 思考에 바탕을 두워 破壞하려는 “最大의 犯罪集團”으로 보고 있다. 이 “죽어가는 集團”에서 베네치아를 救援하고자 하는 소망이 그녀가 知的誠實性을 가지고 끊임없이 思索하고 追求했던 그녀의 信念이었다. 시몬느·베이유의 見解로서는 프랑스를 그 아름다운 베네치아로 象徵해서 그 位置에서 考察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베네치아共和國이 악한 集團의 破壞行爲에서 救援을 받는데 反해서 프랑스는 악한 集團의 破壞行爲에서 구출받지 못한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프랑스國民에게 提起시키고자 試圖해 본 것이 이 作品의 根源的인 要諦라고 보고싶다. 이 論文은 그녀의 思想인 根源性의 한 要素를 考察해 봄으로서 現代人들에게 주는 그녀의 良心宣言의 意味를 浮刻시키고자 한다.

II. 스페인陰謀의 內幕

敎皇 바오로5世(Paul V) (1605~21), 하프스부르크王朝(Habsbourg)의 스페인 第三代 國王 필

1) Abbé de Saint-Réal, César Vichard(?~1692) 프랑스의 史學者. 그의 著書 “베네치아共和國에 대한 스페인인의 陰謀”(1674)는 當時 政界 및 學界에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음.

립3世(Philippe III)(1598-1621), 브르봉王朝 프랑스國王 루이13세(1610~43)의 時代였다. Saint-Réal神父의 歷史小説은 1618년의 事件으로 集約되나 그 사건에까지 이르는 歷史的 背景이 描寫되고 있다. 그 당시 베네치아共和國은 유럽帝國의 선망의 對象이었다. 이태리 統一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로마法皇 바오로5세에 의해서 破門의 宣告를 받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自由를 높이 謳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法皇廳과 베네치아共和國間의 不和를 和解시키고 調停으로 나선것이 프랑스였다. 法皇廳의 명예와 共和國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프랑스는 훌륭하게 그 仲介役을 遂行했다. 그러나 當時 이태리全國의 統一과 그 支配를 비밀리에 노리고 있었던 스페인은 스페인을 除外시켜 協商이 進行되고 있는 事實에 분개했다. 和睦을 맺은 經過의 機密이 밝혀졌을 때 더욱 격분했다. 스페인을 仲介役에서 排除시키고자 主張한 것은 다름 아닌 베네치아共和國의 元老院이었다. 스페인은 일찍부터 베네치아共和國에 대해서 敵意를 품고 있었다. 軍隊의 힘에 의해서 베네치아를 屈服시켜야 된다고 法皇에게 進言한 것은 바로 스페인이었다. 바야흐로 스페인의 베네치아共和國에 대한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필립3세는 유순하고 온화한 性格의 所有者로서 스페인의 분노를 行動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스페인의 進路를 도처에서 妨害하는 베네치아共和國을 어떻게 하든지 崩壞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스페인帝國的 國是이었다. 그런데 스페인에 있어서 多幸스러운 것은 베네치아共和國 駐在大使 베드마르후작(Le marquis de Bedmar)이 부임하고 있었다. 그는 節度있고 모험심이 강하고 卓越한 才能을 갖춘 人物이었다. 스페인은 그에게 絶對的인 信任과 期待를 걸고 있었다.

Saint-Réal神父의 關心은 바로 이 人物에 초점을 두고 있다. 歷史속에서 惹起되는 陰謀의 事件만큼 흥미진진한 것은 없다. 陰謀를 계획하는 人間의 두뇌를 앞질러 행하는 靈感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歷史인 것이다. 勇氣와 忠節과 節度を 겸비한 偉大한 人物에 의해서 計劃된 경우에는 더욱 興味를 돋구게 한다. 그런데 Saint-Réal神父는 베드마르후작같은 偉大한 人物에 의해서 用意周到하게 進行하고 있었던 陰謀의 計劃도 전혀 豫期치 않던 事件에서 깨어져 버리는 狀況을 描寫함으로써 하나의 歷史的 教訓을 追求하고자 했다. Saint-Réal神父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歷史的 教訓이었지만 시몬느·베이유의 경우는 思想的 鬭爭의 記錄으로서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바라던 所望이었다. 作品의 登場人物을 보면 베드마르후작은 베네치아를 일거에 打倒시키기 위해 면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高齡의 프랑스 貴族 루노(Renaud)와 프로방스의 명성높은 海賊船長 피에르(Pierre)를 主謀者로 嚴選했다. 그 중에서도 루노는 富보다 德을 德보다는 名譽를 尊重하여 知識과 判斷力이 탁월한 人物로서, 大使의 職務上 그 事件의 背後에 潛跡하고 있는 베드마르후작의 代行者로서 선출되었다. 軍事作戰의 담당은 피에르에게 委任되었다. 그 밖에는 實踐에 臨하는 者들을 買收하는 일로서 베네치아 駐屯 傭兵部隊과 多數의 外國人士官들을 매수해서 準備는 끝마쳤다. 舉事は Ia Pentecôte(聖靈降臨祭)²⁾의 祝祭前夜에 都市의 重要據點을 一舉에 점거하고 市街를 放火하여 混亂을 惹起시키며 抵抗하는 者들은 모두 죽이기로 決定했다. 그러나 이 陰謀는 다행이도

2) 베네치아와 아도리아海의 婚約의 祝祭로서 1173년에서 1797년까지 계속되었던 베네치아의 祝祭이다.

실패로 끝났다. 자피에(Jaffier)라고 하는 指揮官이 수라장으로 화해버릴 베네치아를 생각하고 計劃遂行의 勇氣를 喪失해 버린다. 자피에의 心中에 일어난 사소한 변화가 스페인의 野望을 분쇄시키고 만다. 그런데 그에 앞서 자피에의 心的變化에 일찍 눈치챈 루노는 즉각 그를 毒殺시켜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자피에의 친구인 피에르는 자피에는 결코 背信하지 않으리라고 力說하여 루노의 提案을 拒否했다. 친구에 대한 忠節과 베네치아에 대한 사랑과의 디렘마에 빠진 誠實한 人間 자피에의 苦惱는 기묘하게 歷史의 흐름을 一時 정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국 자피에는 베네치아를 구원하기 위해 密告하기에 이른다. 다만 그 밑고에 의해서 舉事同志들이 處刑되지 않도록 베네치아共和國의 10人會議³⁾에 서약을 받고 거사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후 10人會議는 誓約을 무시하고 陰謀가담자들을 全員 체포하고 처형시키고 말았다. 자피에는 완전히 背信을 당했다. 자피에는 베네치아가 제공하는 어떠한 金錢도 地位도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同志들을 돌려주도록 외치면서 國外로 追放되었다. 그는 베네치아에 대한 격렬한 복수감을 품으면서 떠나 버린다. 도중에 브레즈地方에서 스페인의 舉事計劃이 成功中에 있다는 情報에 접하여 급히 향했다. 그러나 베네치아 10人會議는 그 地方에 대한 스페인의 陰謀를 書類上으로 感知하여 즉각 軍隊를 파견, 그 地方에 移動하고 있던 스페인軍을 참살케 했다. 자피에 역시 선두에서 전투에 임했으나 결국 체포되어 베네치아에 압송되자 즉시 그는 溺死되었다. 한편 이 陰謀의 計劃者였던 베드마르후작은 베네치아를 떠나 正式으로 프랑드르地方의 首相에 任命되어 수년후에 로마에 의해 樞機官으로 任命되었다. 시몬느·베이유는 Saint-Réal의 歷史小説의 줄거리를 대략 引用하고 있으나 登場人物의 比重의 초점을 완전히 자피에게로 돌리고 있는 점이 相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몬느·베이유는 Saint-Réal 神父의 原作에 없는 10人會議 書記官의 딸 비오렛타(Violetta)를 登場시켜 歷史에 있어서의 醜惡과 美의 分리를 鮮明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 特異한 構成이라고 생각된다.

Ⅲ. 都市(Cité)에 대한 사랑

Saint-Réal神父가 남긴 歷史小説은 스페인에 있어서는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서, 가 능하면 歷史資料에서 抹殺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歷史에는 記錄되지 않는 歷史的 史實이 있다. 그래서 그 숨겨진 歷史가 때로는 歷史 그 自體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허지만 歷史的 史實로서 記錄되지 않고 있으나 Saint-Réal神父의 경우처럼 歷史小説로서 널리 長期間에 걸쳐 애독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時代에도 歷史의 良心이라고 일컬어지는 人間이 存在하며 그들의 眞實한 證言이 후에 歷史의 眞相解明에 커다란 빛을 밝히는 예가 흔히 있다. 그런데 스페인의 歷史에 限해서 言及한다면 16세기에 있어서 맥시코征服의 歷史를 人類는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스페인을 批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歷史를 통해서 먼 未來에 이르기까지 人類가 하나의 良

3) Conseil des Dix., 베네치아共和國의 最高統治機關 그 10名은 베네치아의 名家 297家族中에서 選出되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行政, 立法, 司法의 모든 權力이 그 10人會議의 手中에 장악되었다.

心을 견고하게 保存키 위하여 그 征服史는 언제나 새롭게 批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Las Casas神父⁴⁾가 著述한 하나의 짧은 報告書⁴⁾가 想像外로 數世紀에 걸친 논쟁을 야기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報告書는 필립2세(1556~1598)에게 上疏되어 그 以上 인데이아스를 황폐시켜서는 안된다는 上疏文이었다. 神父의 報告에 의하면 新大陸을 발견한 이듬해 부터 약 40년간 그리스도교 信者들의 포악하고 極惡無道한 行爲에 의해서 男女 어린이를 합쳐 1,200萬名 以上 더나아가서 1,500萬名 以上의 原住民들이 학살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가능한 限 단시일내에 蓄財하고 身分에 어울리지 않은 높은 地位를 차지하려고 생각했던 기독교신자들의 慾心과 또한 인디안 原住民들을 非人間으로 취급하여 虐待하고 있었던 잔인한 人間觀이 그 중요원인 되어 인데이아스의 破壞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 Las Casas神父의 報告였다. 이 報告書에 의해서 격렬한 論爭이 전개되었다. Las Casas의 證言에 立脚해서 볼 때 400년에 걸친 論爭과 論評은 그 自體가 西歐植民主義의 歷史를 形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論爭을 통해서 Las Casas神父는 혐오한 異端的 見解,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宣教師, 狂信的이며 邪心이 있는 神父 등 敎會側으로부터 非難을 받는 한편 國家로부터는 國家의 名譽를 손상시키는 者로서 批判되었다. 今世紀에 접어들면서도 Las Casas神父의 批判은 정신병자, 완고한 아나키스트, 마르크시즘의 설교자, 악마에 빠진 平和主義者 등으로 혹독하게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에 대한 神父의 代辯者는 세계 도처에 許多하다. Las Casas神父의 勇斷이야말로 歷史의 證言에 길이 빛을 간직할 것이다. 아울러 그 事實은 한 時代 한 國家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事實이며 歷史가 계속하는 限 自覺해야 할 人類共通의 課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1618년에 일어난 스페인의 베네치아에 대한 陰謀事件은 不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時間과 空間을 不問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事件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자피에 같은 背信이 비록 그 動機가 승고하면 할수록 歷史의 表面에서 意識의 으로 사라져버리는 어쩐지 黑幕에 찬 時代속에 現代의 世界는 놓여 있다. 어떤 者는 까닭 모르게 비밀히 死葬되고, 또 어떤者는 精神病院에 移送되고 또한 어떤者는 理由도 없이 투옥되기도 한다. 그런데 Saint-Réal神父가 著述한 歷史小説은 새로운 時代의 歷史感覺을 속에 간직하고 언젠가는 그 歷史感覺을 예리하고 심도있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人物을 苦待하고 있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20世紀의 歷史的 體驗을 통해서 歷史에 대한 洞察을 풍부히 지니고 있었던 시몬느·베이유의 知性은 반짝이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몬느·베이유의 “구원받은 베네치아”는 실로 그녀 자신의 世界觀과 文明論에 立脚한 獨創的인 作品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면 시몬느·베이유의 戯曲의 主人公 자피에의 背信에 대한 動機를 주의깊게 觀察해 보고자 한다. 陰謀의 主謀者중 한 사람이 자피에가 돌연히 同志들을 背信하여 10人會議에 密告한 것은 베네치아에 대한 蹂躪이었다. 그러나 그 연민은 베네치아에 대한 사랑과 反面에 帝國主義 및 植地主義에 대한 증오감이 潛在해 있었던 것이다. 이 見解야말로 시몬느·베이유의 歷史感覺의 예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側面을 看過한다면 시몬느·베이유의 戯曲을 根源的으로 理解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第二幕 第四場에서 자피에를 격려하는 피에르의 이야기중에

4) Las Casas著 “인데이아스의 破壞에 관한 簡潔한 報告書”(1552년)

“Allusion à Cortès”⁵⁾라고 베이유는 注記하고 있다. 이것은 에르낭도·코르테스⁶⁾의 惡名높은 人物을 象徵하고자 했다. “救援받은 베네치아”의 登場人物중에서 惡名높은 루노는 스페인의 野望을 代辯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演說하고 있다.

“Vous allez faire l'histoire, détruire une puissance tyrannique, intrigante, haïe de ses propres citoyens, qui s'oppose à l'unité de l'Europe. Grâce à vous, l'Europe entière va être unie sous la dynastie des Habsbourg, et les vaisseaux de l'Europe unie, sillonnant les mers, vont conquérir, civiliser, convertir au christianisme le globe terrestre tout entier, comme l'Espagne a fait pour l'Amérique. Et cela grâce à vous.”⁷⁾

루노는 開化시켜 그리스도敎로 教化시키겠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美州大陸에서 스페인인이 행해온 바는 開花도 아니고 또한 文明도 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黃金에 대한 慾望은 先住民이 構築해 온 高貴한 文明을 破壞했을 뿐만 아니라 先住民에 대해서 아무런 所得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잉카文明도 또한 아스테카文明도 스페인인의 征服에 의해서 歷史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反抗하는 者는 용서없이 殺害하고 溫順한 者는 慰安物로 삼았다. 이것은 征服者의 共通된 目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루노의 演說은 甘味로운 理想의 베일에 감싸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연설을 듣는 者들은 勇猛心을 갖게 마련이고 또한 反抗에 대한 理想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行爲라 하더라도 免罪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다시 말해서 永久히 지탱하는 善을 위한 一時的인 惡의 行爲에 지나지 않는다고 베네치아 駐屯傭兵士官들에게 격려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루노가 말하는 永久히 지탱하는 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征服에 의한 統一과 힘에 의한 統一以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主張한다. 光明의 浸透에 의한 다채로운 調和가 아니라 다만 武力에 의한 統一인 것이다. 그 當時 베네치아共和國은 스페인帝國에 있어서 統一의 進軍을 妨害하는 커찮은 存在였다. 시몬느·베이유가 都市(cité)로서 理想化시켜 描寫코자 하는것은 獨立과 抵抗속에서 潛在해 있는 不屈의 精神을 具現코자 하는데 그 根源의인 意義를 追求하고자 했다. 人間이 사는 都市는 自然히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그 都市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形成되어 가는 것이다. 그 都市에 대한 사랑은 個人에게 埋沒되는 일이 없고 全體主義에 吸收되는 일도 없다. 그 都市라는 것은 오늘날 大都市라고 일컬어지는거와 같은 性格과는 根本적으로 相違한 것이다. 시몬느·베이유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Et pourtant une cité……(Venise…) Mais cela n'est pas au social; C'est un milieu humain dont on n'a pas plus conscience que de l'air qu'on respire. Un contact avec la nature, le passé, la tradition…”⁸⁾

都市는 지나치게 自負하지 않는다. 自己의 領域內에 慎重하게 定着한다. 그래서 그 都市에는

5) Simone Weil : Poèmes suivis de Venise sauvée. Lettre de Paul Valéry Editions Gallimard, 1968, p.70.

6) Hernando Cortès (1485~1519) 스페인의 장군으로서 멕시코征服에서 名聲을 떨쳤음.

7) Simone Weil : Venise sauvée, p.58.

8) Ibid., p.46.

集團의 言語가 支配하는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都市는 언제나 現實이며 實在로서 夢想이나 幻想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反해서 征服과 擴張을 일삼는 帝國은 劃一的이고 單調로우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음울한 性格을 지닌다. 帝國主義에는 複雜한 構造가 없다. 主體性이 없고 平面的이다. 그것은 夢想家들만이 사는 世界이며 또한 架空的인 世界인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위로부터의 억압과 거기에 順從하는 비굴한 예측만이 存在함으로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服從과 義務感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루노의 演說을 分析해 보면 그의 理想에 불타는 熱辯도 결국은 空想이며 架空에 지나지 않는다. “뿌리”를 갖지 않는 人間의 초조한 모습이다. 시몬느·베이유는 루노의 演說以前에 다음과 같은 附加的 解説을 試圖하고 있다.

“Faire apparaître dans ce discours, et reparaitre sans cesse comme un thème sous-jacent, des allusions à la biographie antérieure des conjurés.”⁹⁾ 그리하여 루노는 스페인에서 또한 피에르는 프로방스에서 追放되고 그 밖에 陰謀加擔者들도 각각 과거에 심한 處罰을 받고 모험속에서 追放당한 者들이라는 것을 讀者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는 또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Le déracinement est de loin la plus dangereuse maladie des sociétés humaines, car il se multiplie lui-même. Des êtres vraiment déracinés n’ont guère que deux comportements possibles : ou ils tombent dans une inertie de l’âme presque équivalente à la mort, comme la plupart des esclaves au temps de l’Empire romain, ou ils se jettent dans une activité tendant toujours à déraciner, souvent par les méthodes les plus videntes, ceux qui ne le sont pas encore ou ne le sont qu’en partie”¹⁰⁾

上記 文章內容은 그녀의 晩年の 思索을 鮮明하게 밝히고 있으며 간추려 말한다면 “뿌리뽑힘”은 人間社會의 가장 위험한 病根이다라고 그녀는 主張하고 있다. 베네치아 共和國의 外人傭兵들은 都市의 사랑에 促求되어 武器를 든 것이 아니라 祖國喪失者로서 金錢에 의해 그 職務를 遂行하는 者들이었다. 베네치아에 居住하면서도 베네치아는 그들의 祖國은 아니었다. 뿌리가 없는 放浪者와 같은 生活이 그들의 共通分母였다. 陰謀가담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主謀者들도 祖國喪失者들이었다는 事實이 이 事件을 보다 잔혹하고 음울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大使 베드마르 후작의 奸巧한 計算도 바로 그 點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루노가 높은 理想을 부르짖고 部下들을 고무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各者 一致되는 희열감은 우러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情熱과 熱狂을 表裏해서 본다면 거기에는 그들의 不幸한 경우에 대한 恨만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外人傭兵들이 루노의 演說을 듣고 감격했다 해도 그것은 雄辯의 魔術에 사로잡힌 者들의 自己陶醉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 內容을 깊이있게 吟味해 본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 成功하는 그 날에는 커다란 報酬를 얻게된다는 애매한 計算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삶에 대한 感을 상실하고 있었고 꿈과 현실을 容易하게 誤判하는 原因이 潛在해 있

9) Ibid., p.58.

10) Simone Weil : L'enracinement, p.66. Editions Gallimard, 1949.

다. 한마디로 뿌리가 없는 人間의 경악한 모습을 追求해 볼 수가 있다.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흠속에서 썩을 내미는 生命에 대한 畏敬心を 찾아 볼 수가 없다. 自身에게 歷史를 갖지 못하는 者는 他的 存在에 대해서도 歷史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요컨대 帝國主義者와 植民主義者들은 他的 存在에 대한 畏敬心과 敬意感이란 許容치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 뿌리가 枯死하고 있는 大木의 末期症狀과 흡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他國의 文明을 破壞해도 스스로 苦痛을 느끼지 않는 것은 自身の 뿌리가 이미 부패되고 있다는 證據일 것이다.

IV. 超自然的인 憐憫

아름다운 베네치아, 光明으로 감싸인 運河의 都市 베네치아, 이태리의 르네상스의 美的 寶庫 베네치아, 스페인의 이태리全土支配를 阻止하려는 抵抗의 都市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를 破壞해서는 안된다고 자피에의 마음을 순간 사로잡은 憐憫은 個人的인 感情이나 感傷은 아니었다. 그것은 人間으로서의 성스러운 義務의 感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個人的인 友情의 유대를 斷絶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人間으로서 해야 할 意味가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순간 떠오른 그 憐憫이란 자피에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사소한 뿌리가 存在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자피에는 계획수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人物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연민이라는 성스러운 감정이 용솟음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실로 勇氣와 決斷力이 있는 信賴할 만한 凡人이었을 것이다. 그가 同志들을 감히 背信할 줄은 그 누구도 想像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누구못지 않게 강인한 意志와 實行力이 투철한 人物이었다. 그런데 자피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수수꺼기와 같은 憐憫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友情과 信賴의 철석같은 關係속에서 突然히 가슴속에 북받쳐오는 憐憫은 一時的인 感嘆程度로서는 自身の 人格的 信望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시몬느·베이유가 基督教과 接觸하는 가운데서 특히 스페인動亂을 體驗한 그 이듬해 즉 1937년에 이태리 旅行中 Assise에서 二日間 滞在한 때였다. Saint-François가 기도하던 낡은 小聖堂속에서 겪었던 영혼의 커다란 변화를 想起시켜 보는 것은 자피에의 超自然的 憐憫을 理解하는데 큰 意味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녀는 그 小聖堂에서 生前에 처음으로 神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다음과 같이 告白하고 있다.

"Quelque chose de plus fort que moi m'a obligée, pour la première fois de ma vie à me mettre à genoux."¹¹⁾

자피에의 마음속에 돌연 용솟음친 憐憫은 그녀가 겪은 그 당시의 不可思議한 힘과 흡사한 狀況을 나타내주고 있다. 스페인의 帝國主義的 野望을 분쇄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野望을 阻止한것은 자피에의 마음속에서 울어낸 무한히 작은 憐憫이었다. 이 無限한 사소한 行爲가 순간에 행해져서 歷史의 巨大한 흐름의 方向을 轉換시켰다고 생각할때 歷

11) Simone Weil : Attente de Dieu, p.43. L'Éditions Gallimard, 1966.

史의 참된 秘密은 意外的인 곳에 潛在해 있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다. 그런데 憐憫과는 반대로 進歩, 發展, 征服, 統一이라고 하는 커다란 幻想을 追求하는 巨大한 怪物들은 어디까지나 永遠히 이 地上에 惡한 뿌리를 내리려고 試圖할 것이다. 怪物들은 實在의 世界에 있다 하더라도 實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오로지 空想속에서 生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他的 存在를 幻想의 犧牲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怪物들은 自己存在以外的 實在은 없는 것이다. 自己以外에 어떤 存在가 있다고 認識할때 그들은 본래의 野獸性을 發揮해서 其他 存在를 地上에서 抹殺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到處에 自己의 名聲을 浮刻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數百年, 數千年의 歷史를 가진 뿌리내린 文明도 夢想家들에게는 路上에 자갈과 다를바가 없다. 바야흐로 베네치아는 實在性이 없는 연약한 小動物로서의 幻想에 취하고 있는 帝國主義的 野獸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에 자피에는 그의 憐憫에 의해서 幻想을 打破해 버린다. 그는 그 情熱과 慎重함도 또한 그 忠誠과 勇氣도 모두가 幻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帝國은 都市(cité)를 짓밟을 수는 없는 것이다. 帝國은 아무리 強力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幻想의 存在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都市는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歷史를 가진 現實이며 또한 實在인 것이다. 그런데 참된 都市는 擴張을 모른다. 아무리 편협하게 批判되더라도 그 都市의 住民이 아니고서는 그 動機가 갖는 참된 美를 맛볼 수가 없을 것이다. “救援받은 베네치아”의 作品에서 唯一한 女主人公인 비오렛타(Violetta)는 베네치아의 美의 象徴으로 描寫되고 있으며 또한 그녀가 피에르 또는 자피에와의 사랑을 結婚과 연관시킬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理由에 연유된다. 그것은 人種的 偏見도 아니고 또한 排他的 感情도 아니다. 비오렛타는 “都市의 딸”였기 때문이다. 都市는 文化를 保存하고 있기 때문에 同化되지 않는다. 文化가 世界에 擴張되어가는 것은 征服이나 支配의 形態로서가 아니라 빛의 浸透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빛은 多様な 個性을 照明케 한다. 都市의 文化는 内部로 향해서는 뿌리와 같고, 外部로 향해서는 빛과 같은 것이다. 피에르가 비오렛타를 속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을 때 자피에는 都市를 掠奪할 경우 비오렛타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피에르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J’ai cru voir que tu avais de l’inclination pour cette jeune fille. As-tu des instructions à me donner à son sujet, pour la nuit prochaine? faudra-t-il avoir soin de sa sécurité?”¹²⁾

그때에 피에르는 다음과 같이 非情하게 대답하고 있다.

“C’est vrai qu’elle me plaît. Après notre victoire je la prendrai avec plaisir, si elle n’a été ni tuée ni souillée dans le sac. Autrement, j’en aurai assez d’autres.”¹³⁾

다시말해서 무사히 도시약탈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기꺼히 그녀를 맞아드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自己에게 다른 女人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비오렛타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文化를 갖지 않는 人間の 枯渴된 사랑인 것이다. 밤의 장막이 내리고 平和스러운 睡眠이 베네치아를 감싸일 때 자피에의 마지막 注視의 눈길이 베네치아를 향해서 다음과 같

12) Simone Weil : Venise sauvée, p.68.

13) Ibid., p.68.

이 울부짖었다.

"Par moi cette nuit la terreur, la honte et la mort descendront sur eux, et c'est moi qu'ils auront pour maître.

Demain tous ici, à contrecœur, m'obeiront.

La ville est heureuse encore ce soir en sa splendeur. Pour un soir encore son peuple reste intact et fier.

Ce dernier soleil la couvre seul de ses rayons; S'il savait, sans doute il s'arrêterait par pitié.

Mais ni le soleil n'a pitié d'elle, hélas, ni moi.

M'est-il donc permis d'être insensible autant que lui, Moi dont les yeux voient quelle cité devra périr?"¹⁴⁾

그리하여 자피에는 돌의 殘骸와 無人의 市街 또한 四方에 흐터져 움직이지 않은 시체를 想像해 본다. 그러면서 자피에의 獨白은 통절한 신음이었다. 그는 무자비하게 強要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그는 몇시간후에 終幕을 알리는 베네치아를 目前에 두고 非情한 態度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憐憫에 항거하는 일만이 지금 그에게 남은 忠誠心의 表示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 自身の 非情한 태도에 전율을 느낀다. 아무리 太陽이라 하더라도 이 計劃을 알고 있다면 그 연민에 의해서 잠시나마 그 運行을 停止시켜주리라 생각해 본다. 허지만 그는 太陽이 그 運行을 전혀 停止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 自身도 그에 順應할 수 밖에 없다고 斷言해 본다. 그러나 太陽의 不動의 本性에 고무되어 그는 最後까지 陰謀計劃에 忠實할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暴力的인 煽動者들은 모두 宇宙의 秩序의 不動性에 고무되고 있다. 太陽의 不動性에는 感情이란 없다. 그러므로 人間에게 있어서 太陽과 같은 不動性은 가장 非人間的인 非情에 사로잡히게 된다. 人間에게 있어서의 秩序는 太陽에 있어서 秩序와는 다르다. 人間에게 있어서는 不動의이며 不變한 것이 그대로 秩序와 연관되어 행해지지 않는다. 第三幕에 나오는 臺詞에서 소름끼치는 것 같은 不動性을 찾아볼 수 있다.

"Etait-ce pour cela que j'ai sauvé ces misérables? Hier ils étaient perdus; pour eux la mort et l'esclavage. Pour moi gloire et fortune; et nous étions sûrs du succès. J'ai renoncé à tout, par pitié, pour les épargner. Et vous me dites, vous—je ne peux pas le croire encore vous osez m'annoncer qu'on fait mourir mes compagnons?....."¹⁵⁾

그것은 자피에의 눈물도 또한 자피에의 간절한 呼訴도 完全한 沈黙에 의해서 無視되고 있다. 그러나 자피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憐憫이야말로 人間에 있어서의 秩序의 本質인 것이다. 太陽도 그 연민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自然의 秩序는 實로 人間的인 것에 制約됨으로써 비로서 아름다움을 發揮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多樣的인 色도 또한 여태껏

14) Ibid., p.95~96.

15) Ibid., p.107.

듣지 못했던 갖가지 音도 그 人間性이 넘치는 秩序에 의해 不可思議한 調和를 가지고 宇宙全體가 雄壯한 交響曲을 演奏하게 되는 것이다. 憐憫이야말로 時間속에 스며들어온 永遠한 것이며 時間을 停止시킬 수 있었던 超自然的인 것이다. 시몬느·베이유는 그 超自然的인 연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Ce sentiment de tendresse poignante pour une chose belle, précieuse, fragile et périssable, est autrement chaleureux que celui de la grandeur nationale. L'énergie dont il est chargé est parfaitement pure. Elle est très intense. Un homme n'est-il pas facilement capable d'héroïsme pour protéger ses enfants, ou ses vieux parents, auxquels ne s'attache pourtant aucun prestige de grandeur? Un amour parfaitement pur de la patrie a une affinité avec les sentiments qu'inspirent à un homme ses jeunes enfants, ses vieux parents, une femme aimée……”¹⁶⁾

上記 引用文을 통해서 연민은 반드시 참된 美에 대한 사랑과 연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眞實로 아름다운 事物은 永遠한 存在를 象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요컨대 “救援받은 베네치아”와 “뿌리내리기”는 밀접한 思想的인 연관이라기 보다는 아주 同一한 主題를 追求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V. 歷史속의 베네치아

자피에게 憐憫을 불러일으키게 한 베네치아에 대해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베네치아共和國은 中世都市로서 西歐第一의 항구도시로까지 格上했으나 産業革命의 커다란 물결에 밀려서 점차로 쇠퇴해갔다. 그리하여 獨立을 잃고 결국은 이태리王國에 統合되어 버렸다. “救援받은 베네치아”의 테마는 쇠퇴해가는 베네치아의 最後의 몸부림을 묘사하고자 했다. 시몬느·베이유의 안목에는 그것이 마치 나치스의 攻擊을 받은 프랑스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백년, 수천년의 기나긴 歷史속에서 마치 眞珠같은 文化遺産이 하루아침에 破壞되어버리는 戰爭의 잔혹함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었다. 파리陷落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慘事였다. 독수리에게 습격받은 산토끼처럼 프랑스는 독일군의 맹렬한 攻擊앞에 꿈쩍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전체가 그 무서운 威脅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價値도 武力에 抵抗할 수 없는 것일까? 그녀의 心中에는 하나의 信仰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베네치아속에 비오렛타와 스페인帝國속에 자피에라고 하는 두 人間에게 象徵되고 있는바 그것이 歷史의 核心속에 存在하여 역사속에 참된 現實로서 다른 幻想을 除去케 하는 信仰인 것이다. 그것은 歷史를 神이라고 하는 信仰과는 다른 것이다. 歷史속에 潛在해 있는 超自然的인것 또는 歷史속에 突然 나타나는 超自然的인 것은 가장 非現實的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고 또한 歷史에 있어서의 必

16) Simone Weil : L'enracinement, p.218. L'Editions Gallimard, 1949.

然的인 한 要素라기 보다는 偶然에 속하는 虛妄한 사실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 버리기 쉽다. 하지만 人間의 意識과는 關係없이 歷史를 決定的으로 轉換케 하는 힘, 다시 말해서 그것이 歷史 속에서의 참된 現實이라고 하는 信仰이 그녀의 歷史感覺을 점차로 支配하게끔 되었다. 그에 대한 立證은 第2幕 13장에서 비오렛타와 자피에의 아름다운 交唱에서 表現되고 있다. 비오렛타는 이 세상의 暗黑을 알지 못하는 꿈많은 少女이다. 베네치아共和國의 十人會議 書記官의 딸이면서 그녀에게는 現實의 추악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十人會議라고 하면 베네치아에서는 最大의 權力을 장악한 集團으로서 그 任務은 最高檢察廳과 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國事犯 處理를 위해 強力한 檢察權力을 賦與받고 있었다. 陰謀의 主謀者 피에르라 하드레도 그 十人會議에 대한 恐怖感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한 國家가 歷史속에서 獨立을 保存하는데 대한 難關을 이 十人會議의 存在가 象徵시키고 있다. 人間性을 保存하기 위해 非人間性이 不可缺한 要素가 된다는 歷史의 二律背反性은 피할 수 없는 歷史의 運命이라고 생각된다. 베네치아는 創建以來 하나의 神話가 있었다. 그것은 어떠한 侵略者도 베네치아를 侵犯할 수 없다는 神話인 것이다. 神話에는 언제나 人間의 能力以上の 무엇인가를 象徵시킨다. 地形이나 氣候 등은 물론 그 속에 包含되기 마련이다. 베네치아가 간직하고 있는 神話的 要素는 超自然的인 것을 豫感케 하는 形態로서 自由 및 獨立의 歷史를 人間의 言語로서 表現한다는 것은 一面 抽象的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十人會議에 代表된 움울한 權力으로서의 베네치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비오렛타에 象徵되는 人間의 都市 베네치아였다. 또한 돌과 運河의 都市로서 그 아름다움은 寶石의 箱子처럼 比喩되었다. 그러나 陰謀와 背信 또한 權力과 暴力이 支配하는 現實世界에 있어서는 都市(cité)란 비오렛타처럼 연약하고 非現實的인 것이다. 그래서 非人間的인 巨大한 權力만이 現實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비오렛타야말로 베네치아 그 自體이며 美의 象徵인 것이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가장 약하고 작은 部分을 固守한다는 것이 人間에게 있어서의 聖스러운 義務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保存하기 위해서는 十人會議에 代表되는 權力以外的은 없다고 간주될 때, 人間의 성스러운 義務는 相互 矛盾되는 두가지의 絶對要請 앞에서 分裂을 免치 못한다. 그것은 “뿌리내리기(L'enracinement)에 있어서 시몬느·베이유가 최후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의 課題였던 것이다. 兩立할 수 없는 두가지의 絶對的 義務에 의해서 分裂되는 現實을 直視할 때 시몬느·베이유는 두가지 義務의 不兩立을 減少케하는 方向으로 이 世界의 秩序를 確立해 나가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人間으로서 義務를 저버리고 살 수는 없는 일이며 다만 어떠한 內容을 가진 義務에 自身을 헌신하느냐 달려있다. 暴力의 煽動者들은 單一化된 義務를 強要한다. 요컨대 그들에게는 삶의 環境이라는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다만 目的만이 可能할 뿐 目的에 대한 情熱이 그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目的은 手段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目的 그 自體도 排除하는 毒素가 含有되고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崇高한 理想이나 온갖 手段을 正當化할 수 있는 權利는 없다. 또한 삶의 環境속에서 成熟되어가는 것만이 目的이 理想과 연관되어가는 것으로서 環境을 抹殺하는 熱狂的인 幻想을 歷史의 要因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暴力이 만들어내는 秩序는 陶醉에 의해서만 받아드려지는 한갓 잔혹한 非現實인 것이

다. 그렇다면 비오렛타가 노래하는 天上의 音樂으로서의 베네치아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救濟될 것인가. 또한 權力이 그 救助者로서 適應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베네치아를 救援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스페인의 패권의 꿈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연한 幸運을 기다릴 것인가 또한 그 幸運을 神의 救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느 것도 解決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비오렛타는 자피에의 目前에서 不落의 都市 베네치아를 자랑한다. 과연 베네치아에 危險한 事態가 發生할 수가 있을까, 또한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破壞하는 行爲를 神은 許容치 않으리라고 비오렛타는 主張한다.

“Sa beauté la défend mieux que les soldats, mieux que les soins des hommes d’État. / N’est-ce pas vrai, monsieur Jaffier?”¹⁷⁾

이와 같은 비오렛타의 確信은 非現實的인 空想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不可思議한 魅力이 되어 자피에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비오렛타의 主張을 가볍게 받아 넘겼으나 점차로 心的苦痛을 느끼면서 그녀의 確信에는 어딘가 神的信念이 넘쳐있다고 자피에는 생각한다. 破壞는 격렬한 陶醉를 불러 일으키고 또한 破壞뒤에는 무서운 虛無와 罪責感을 切實히 느끼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 破壞가 아무리 崇高한 目的에 의해서 꾸며져있다 하더라도 다룰바가 없다. 자피에는 비오렛타의 確信속에 끌려 들어가는 自信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破壞하기 위해서 自身이 가지고 있는 모든 特性 다시말해서 지혜와 용기 또한 慎重 등 온갖 能力을 기울여 왔던 지금까지의 努力이 世界의 美로 무장하고 있는 비오렛타앞에 산산조각으로 무너지는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人間의 作品에 지나지 않는 一個都市가 巨獸의 暴力앞에 적나라한 모습을 나타낼때 理解할 수 없는 神의 作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베네치아 破壞의 陰謀를 숨긴채 자피에는 靈感에 사로잡힌 人間처럼 다음과 같이 獨白한다.

“Une chose telle que Venise, aucun homme ne peut la faire, Dieu seul. Ce qu’un homme peut faire de plus grand, qui l’approche le plus de Dieu, C’est, puisqu’ il ne peut créer de telles merveilles, de préserver celles qui existent.”¹⁸⁾

자피에는 바야흐로 野獸의 犠牲으로 化할려는 베네치아속에서 비오렛타를 발견했다. 그녀는 神의 作品으로 創造된 비오렛타였다. 다시 말해서 자피에의 戀人으로서의 비오렛타는 아니다. 個人的인 戀情이 스며있지 않는 순수한 存在로서의 비오렛타인 것이다. 시몬느·베이유가 描寫하고자 하는 비오렛타의 特徵은 바로 그것이다. 시몬느·베이유의 作品에 登場한 비오렛타는 現實的인 歷史속에서는 그녀 自身の 役割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現實以上으로 現實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오렛타는 時間속에 스며들어온 永遠性이며, 時間의 발걸음을 阻止시키는 超自然이다. 超自然은 現實을 넘어서는 創造的인 힘이며 現實을 실로 現實化시킨다. 그런데 비오렛타는 幻想과 같은 存在는 아니며 幻想에 잠긴 人間을 現實로 불러드리는 목소리인 것이다. 幻想은 이 超自然的인 움직임에 의하지 않고는 現實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다. 자피에는 비오렛

17) Simone Weil : Venise sauvée, p.89.

18) Ibid., p.89.

다가 노래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참된 現實을 覺醒하게 되는 것이다. 超自然의 概念은, 이와같이 宗教性을 탈피하며 게다가 宗教가 가지는 깊이에 無名의 形態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超自然은 宗教的 神祕성과 同一한 次元으로 보게되는 한은 그 超自然性은 現實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가 없다. 超自然은 卓越한 人間的인 言語라고 認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세기는 이 비오렛타를 歷史밖으로 逐出하고자 試圖하고 있다. 그 名分은 어쩔수없이 비오렛타를 죽이는 한 非人間的인 世紀라고 말할 수 밖에 없으며 오늘날에도 비오렛타를 發見한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일은 아니다. 한마디로 비오렛타의 美는 世界의 美를 象徵하고 있기 때문이다.

Ⅵ. 執着으로부터의 虛脫感

자피에는 陰謀의 內容을 모두 밝힌후 베네치아의 十人會議가 얼마나 냉혹하고 음울한 存在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자피에는 陰謀의 主謀者들의 生命을 보증한다는 약속을 받은후 그 秘密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十人會議는 태연히 그 誓約을 어기고 全員을 夜中에 逮捕하고 處刑해 버렸다. 十人會議가 有罪者를 밤중에 絞殺하고 密告者에게는 高額의 報酬를 준다는 것은 옛부터의 慣例였다. 그렇지만 자피에는 報酬에 매달려서 同志들을 密告한 것은 아니며 報酬로서 要求한 것은 誓約을 지켜서 20人의 主謀者들의 生命을 保障해 주는데 있었다. 그런데 十人會議의 決定은 全員 處刑되고 자피에게는 그 事實을 알리지도 않고 國外로 追放케 하는 것이었다. 자피에의 崇高한 動機는 무참히 짓밟혔다. 密告의 動機에 대해서 質問받은 자피에는 다만 한가지 憐憫이라고 對答할 뿐이었고 十人會議의 立場에서 볼때는 심각히 거론할 理由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자피에는 同志들의 運命을 알고 분노한다. 私慾이 없는 자피에의 초조는 간절했다. 그의 열렬한 雄辯도 차거운 돌과 같은 沈默에 의해서 묵살되어 버린다. 沙漠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처럼 자피에의 主張은 모두 침묵속에 사라져 버린다. 자피에가 사랑하던 베네치아는 과연 冷酷한 都市였는가 하는 의아심이 솟구쳐 오른다. 자피에는 사도 요한처럼 깊은 고독을 맛본다. 일찌기 사람들은 요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메마른 땅처럼 요한의 가르침을 苦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요한이 不幸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려 버렸다. 요한이 외침은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 자피에의 心情과 똑같았다. 요한이 사람들과의 論爭에 절망에서 神과 對話를 즐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피에도 호소하는 것이 허무함을 느끼고 하늘과 바다에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호소한다.

"Ciel, soleil brillant sur la cité,
Mer, canaux, marbres mêlés à l'eau,
Je vous parle à vous et non aux hommes,
Puisque les hommes n'entendent pas,
Moi, celui qui sauvai vos splendeurs,

Moi, malheureux, je me suis perdu.

Je péris pour vous; soyez maudits;

Périssez aussi à votre tour.”¹⁹⁾

人間이 사는 環境이야말로 都市의 生命인데도 사람들은 돌과 같이 沈黙을 지키고 있다. 자피에의 마음속에 돌연히 유발된 高貴한 憐憫은 아무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등한시하고 있다. 人間들의 忘恩을 아무리 책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자피에는 점차로 虛脱感에 빠지게 된다. 期待는 모두 執着으로 부터 오는 법이다. 이제 베네치아는 執着의 對象이 아니며 오히려 베네치아에 대한 자피에의 사랑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냉엄한 고독속에서 追放당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베네치아는 救援者마저 태연히 버리고 만다. 베네치아의 住民들도 그 救援者 자피에를 咀呪한다. 또한 비열한 二重背信者라고 擲揄한다. 그는 격렬하게 베네치아를 저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絶叫한다.

“Je m'en vais sans amis, chassé, privé de mon honneur.

On ne veut plus de moi, maintenant qu'on m'a tout fait perdre.

Où puis-je me trouver? Qui voudra recevoir un traître,

Puisque ceux qu' à sauvés ma trahison vont me chasser?”²⁰⁾

강제로 屈辱의 報酬를 손아귀에 쥐게 함으로서 同志를 背信한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웃는다. 그 순간 자피에게는 過去도 未來도 없는 처절한 存在가 되고 만다.

“Dieu, mon âme a besoin de la chaleur pour cacher sa honte,

La chair qui mange et dort, sans avenir et sans passé.”²¹⁾

그 잔혹한 背信의 報酬는 물론 榮光도 勝利도 歡喜도 아니었다. 그것은 人間에 대한 敬意의 報酬가 아니라 恥辱을 은폐하는 肉體를 채우는 一時的인 糧食이라는 意味以外的의 다른아니다. 그러나 怒氣와 絶望에 빠졌던 자피에는 의연하게도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世界의 美를 간직하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다시말해서 베네치아를 통해서 感謝함을 期待하고 또한 그것은 當然한 權利처럼 느껴졌을 때 베네치아는 醜하게 보였던 것이다. 아울러 베네치아에서 아무것도 期待하지 않았던 순간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光輝에 찬 베네치아를 再發見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La mort vient me prendre. A présent la honte est passée.

A mes yeux bientôt sans regard que la ville est belle!

Sans retour il faut m'éloigner des lieux des vivants.

On ne voit nulle aube où je vais, et nulle cité.”²²⁾

使徒 요한의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한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요컨대 그것은 人生에 있어

19) Ibid., p.117.

20) Ibid., p.122.

21) Ibid., p.120.

22) Ibid., p.133.

서 悲劇性만이 갖는 共通의인 深奧한 美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베네치아가 온갖 虛飾의 衣裳을 벗고 期待한 아무것도 찾지못하게 될 때 일찍이 느낄 수가 없었던 모습으로 베네치아는 裸形의 美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愛着이나 執着을 떠나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超自然의 美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Ⅶ. 結 論

시몬느·베이유는 自身의 心情속에 서서히 成熟되어가는 晩年の 信念을 그녀의 戲曲을 통해 執筆했다. “救援받은 베네치아”는 未完成作品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나 그것은 마치 슈벨트의 未完成交響曲과 흡사하며 그것은 하나의 完成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內容은 典型的인 悲劇이다. 하지만 近代悲劇의 系譜에는 속하지 않는 희랍 悲劇의 傳統을 繼承하여 劇作品을 構成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시몬느·베이유는 近代悲劇을 아주 無視해버린 것은 아니다. 事實上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리오왕”에 대해서 소포크레스의 희랍 悲劇과 아주 흡사한 作品으로 評價하고 그 作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詩라고 好評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悲劇作家 라신느와 코르네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신랄한 批評을 하고 있다. 그것은 文學作品으로서의 問題點이 아니라 主題의 性格에 구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工場에서 女職工으로 從事할 때 썼던 斷片속에 라신느의 悲劇은 人間의 悲劇이 아니라 宮廷의 悲劇으로서 權力만이 人間의 靈魂속에 잔혹한 荒廢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라신느의 悲劇속에는 抽象的인 存在以外는 없다고 力說하고 있다. 人間에게 있어서 실로 人間다운 運命이란 무엇인가, 또한 內密한 人間의 마음을 깊이 洞悉시키는 悲痛한 運命이란 무엇인가라는 問題에 시몬느·베이유는 苦悶하고 또한 깊이 考察했다. 近代悲劇의 文學上的 偉大함과 달리 희랍 悲劇에는 保有하고 있으나 近代悲劇에서는 이미 喪失해버린 崇高한 精神世界와 人間性을 現代에 와서 回復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近代悲劇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因果應報에 바탕을 둔 道德的秩序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悲劇마저도 그와 同一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희랍 悲劇의 主人公처럼 高潔하고 完璧한 人間을 創造해내지는 못했다. “救援받은 베네치아”의 主人公 자피에는 그 누구에게도 理解받지 못하고 背信한 汚名을 받으면서 베네치아로 부터 追放당하고 있다. 그것은 憐憫을 베풀면서도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憐憫을 받지 못하는 고독한 人間의 처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울러 그것은 베네치아의 美의 象徴으로 描寫되고 있는 비오렛타를 통해서 베네치아의 世界의 美를 갈구했던 한 人間의 애 切러운 運命인지도 모른다. 背信하지 않고서는 美의 世界를 救援할 수 없는 歷史의 不條理를 實感케 한다. 시몬느·베이유의 信念은 他人의 存在에 대한 認識 그 自體가 이미 偉大한 靈感의 表示라고 느끼고 있다. 수없이 展開되는 植民主義的인 侵略이나 大規模的인 戰爭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非人間的인 無差別 虐殺등에 의해서 貴重한 人間의 生命이 벌레처럼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볼 때 “存在”에 대한 感覺이 荒廢되어가는 形상을 痛感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녀는 力說하고

있다. 또한 大帝國을 꿈구는 怪獸들은 自己以外的 存在를 認定치 않고 幻想만을 現實로 내다보며 存在의 高貴함을 忘却하고 있다고 그녀는 主張하고 있다. 그러므로 實在에 대한 예리한 感覺을 그 人格속에서 느껴져야 한다고 그녀는 호소하고 있다. 요컨대 이 作品을 통해서 그녀는 악한 集團的 背反이 文化와 傳統을 破壞한다는 側面을 強調함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個人의 崇高한 自由에 立脚해서 抑壓과 權力에 反抗하여 傳統과 文化속에 世界의 美를 救援함과 동시에 그 뿌리를 박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Bernard Halda : L'évolutions spirituelle de Simone Weil(1964, Beauchesne)
Ivo Malan : L'enracinement de Simone Weil (1960, La Colombe)
Simone Weil : L'enracinement(1949, Gallimard, Collection Espoir)
Simone Weil : Attente de Dieu (1950, La Colombe)
Simone Weil : La connaissance surnaturelle (1950, Gallimard, Collection Espoir)
Simone Weil : Cahiers I (1951, Plon)
Simone Weil : Cahiers II (1953, Plon)
Simone Weil : Oppression et liberté(1955, Gallimard, Collection Espoir)
Simone Weil : Venise sauvée (1955, Gallimard)
Simone Weil : Ecrits de Londres et dernières lettres (1957, Gallimard, collection Espoir)
Zacques Cabaud : L'expérience vécue de Simone Weil (1957, Plon)

Sommaire

Réflexions sur “Venise sauvée” Chez Simone Weil

Ko Won-hee

En Plein exode, pendant un arrêt à Vichy auquel une blessure l'avait obligée, elle commence à composer Venise sauvée.

C'est une tragédie directement inspirée par l'épreuve de la guerre. Elle montre, en effet, dans le cadre d'un fait historique, la disparition, l'écrasement de toute notion d'honneur et de pitié lorsque se déchaînent l'esprit de conquête et l'ambition des hommes avides de pouvoir. Elle évoque toute la suite des malheurs qu'entraîne la guerre :

la peur, la trahison, le mépris du vaincu, le déracinement, la mort, tandis qu'à l'opposé brillent d'une pure lumière l'amitié et l'amour de la cité. C'est un milieu humain dont on n'a pas plus conscience que de l'air qu'on respire un contact avec la nature, le passé, la tradition, cité, cela n'évoque pas du social.

Pendant tout le temps de son séjour à Marseille travaillait à Venise sauvée. A son départ pour L'Amérique en 1942, elle avait fixé le détail de chaque scène et compose le troisième et dernier acte. Plus tard, à Londres, étant l'hôpital, elle espérait pouvoir reprendre et achever cette oeuvre, à laquelle elle avait attaché son coeur. Mais la maladie et la mort ne lui en avaient pas laissé le temps.